

SF재난서사의 파국주의와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윤 애 경**

요약

이 글에서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2021)에 깔려 있는 파국을 이겨낼 동력으로서의 파국주의와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지구공동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SF재난서사로서의 본 작품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인류세적 파국 상황은 소외된 타자들에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주체성'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데, 파국 속에서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고 희망을 실천한 프림 빌리지 여성들의 행위들은 본 서사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파국주의의 실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활력이 지수의 지구 재건의 결심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성은 결코 정물적이거나 부차적이지 않으며, 모스바나를 세계 곳곳에 식재함으로써 더스트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조력자로서 이들의 존재적 의미는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작가의 궁극적인 전언은 주요 인물들의 서사와 함께 더스트 시대의 소외된 타자들이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보여준 파국 극복의 의지와 희망의 실천 서사가 함께 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할 때 한층 더 선명하게 획득될 수 있다.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계 위기로 파급되는 총체적 파국의 상황은 세계와 자연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의 관계 맺기가 요구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른바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인류세의

* 이 논문은 2023-2024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국립창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파국적 상황에서의 생존 모색은 오직 생명체들의 관계를 증시하는 생태적 세계관
에로의 전환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 작가는 모스바나의 유연한 생존 방식을 인류
가 받아들여야 할 주요 덕목으로 전달하는 한편, 과학기술에의 맹신과 그것에 대한
비윤리적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근대적 사고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
고하고 있다.

결국 본 SF재난서사의 주요 관점은 더스트 사태에 대한 회고와 그것을 해결해
낸 과학기술의 자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스트 사태 이후 더욱 공고하게 지속
되어 가는 인간중심적 세계관과 그로 인한 그릇된 과학기술에의 인식과 윤리문제
에 대해 주목하고 경고하는 한편 기억 구축을 통해 온전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SF재난서사, 파국주의, 인간중심주의, 새로운 주체성, 관계적 윤리, 윤리
적 패러다임,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목차

1. 서론
2. 파국의 정동과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
3. 생태적 공존과 관계적 윤리의 형성
4. 과학기술 향유의 과제와 기억 구축의 의미
5. 결론

1. 서론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공통의 제일 화두로 기후 위기 문제를 단연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거주자들이 지
구 온난화가 야기하는 재앙 수준의 기상이변을 일상에서 혹독하게 겪고
있는 중이다. 지구 곳곳에서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
과 폭우, 치명적인 산불과 가뭄 등의 동시다발적인 기후 재난들은 그 발
생 원인으로 인간의 행위를 지목하고 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 두 과학자 폴 크뤼첸과 유진 스토머가 주요한 지질학적 힘으로서 인류의 역할에 주목하며 현재의 지질학적 시대를 ‘인류세’¹⁾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던 바, 그 이후 인류세 담론은 전 세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이후 최근 3~4년 사이 관련 연구 결과물들이 집중적으로 축적²⁾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한 축에는 이 시기 한국 문학장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과학기술 시대의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제기하고 있는 SF소설들의 활약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인류세 담론과 관련한 이상의 지표들은 위협적인 기상이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심각한 위기의식의 반영이자 지구 생태계의 붕괴 상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의 과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SF문학은 오랜 기간 동안 “기술력이 탄생시킨 경이로움에 관한 기념비적이고 낙관적인 묘사와 그것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교훈적이고 비판적인 경고”를 동시에 수행하는 역사를 이어왔다.³⁾ SF문학을 “현실의 반영일 뿐 아니라 현실에 관한 것”으로 본 다코 수빈의 관점도 그것이 현실에 대한 특유의 비유의 장르임을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인간 존재 조건에 관한 SF의 사고실험은 필연적으로 철학적 개념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인류세의 파국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장르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중심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는 데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구를 들끓게 하고 있는 기상이변이 더 이상 순수한 자연현상이 아니

1)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 파국과 폐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 연구』 19권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7면 인용 참조.

2) 손희정에 따르면 RISS 기준으로 한국의 학술장에 인류세라는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이고 총 361건의 검색 결과 가운데 257건 정도가 2020년 이후 작성된 논문에서 나왔음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최근 3~4년간 인류세에 대한 관심이 쏠림을 알 수 있다. 손희정,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 메멘토, 2024, 27면 참조.

3) 세릴 빈트, 진행선 역,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아르테, 2019, 63면.

라 인류 문명이 초래한 결과임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인류세”의 시대에서 생태학과 결합한 SF문학은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의 비판적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서사화함으로써 희망을 전달한다. 이 점에서 “이야기는 과학보다 미래에 먼저 가 있으며, 잘 짜인 미래이야기는 현실의 좋은 지침으로서 오늘의 문제들을 경고하기도 하며, 보다 더 큰 변화를 독려하기도 한다.”⁴⁾는 유선애의 진술은 이 글의 연구 대상인 김초엽의 SF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2021)에서 그대로 겹쳐진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문화의 주요 내용으로 수렴되고 있는 인류세 서사들이 대체로 인류의 종말론적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과국으로 치달아가는 인류의 삶과 지구 생태계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면, 최근 발표된 김초엽의 이 작품은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문제에서 출발한 인류세 서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예견되는 과국의 상황과 전망을 진단·모색하는 과정에서 여타 인류세 서사의 방식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점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여러 생태주의 SF소설들과도 차별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⁵⁾

이 작품이 지닌 기존 인류세 서사와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4) 유선애,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한겨레출판, 2021, 88면.

5) 정세랑의 「리셋」(2020), 천선란의 「레시」(2020), 두나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2020)의 경우, 인류세의 과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생태적 상상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태주의 SF소설로 평가된다.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2021) 역시 이들 작품들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으나 좀 더 엄밀히 살펴볼 때 이 작품의 경우, 인류세적 상황을 야기한 주요 원인에 주목하면서 그 해결책으로서 생태적 상상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앞의 소설들과 차별적 지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과 이 시대의 윤리 부재의 상황들이 어떻게 인류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지구 생태계의 공존을 고민하는 작가의 시각은 과국적 상황이 야기된 원인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 과국적 상황 이후의 주어진 환경에서 진행되는 다소 환상적인 서사 전개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작가의 입장은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속으로 진행 중인 파국적 위기에 대해 파국이 아닌 ‘파국주의’⁶⁾의 차원에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타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단순한 비관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스며들어온 생태-존재론적 위급성에 대한 급진적 사유와 촉발된 감성의 결합물”⁷⁾로 정의되는 파국주의는 파국을 환상적으로 접근하는 낙관적 태도나 멸망으로 규정하는 비관적 접근 방식을 넘어서 파국적 현실의 심각성에 기초한 변화 가능성의 모색을 지향⁸⁾하고 있다는 점에서 SF 장르의 주요 속성인 미래지향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문제적 상황을 풀어나가는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작품이 SF재난서사⁹⁾로서 근미래 과학기술 시대의 배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국의 실제적 과정을 구체화하며 강한 현실적 설득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 또한 기존 인류세 서사들과는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 혹은 근대적 세계관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는 인류세 담론의 인식론적 논의 선상에 인류 역사상 획기적 진보의 증좌이자 인류의 파국을 가속화시킬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과학기술

6) 본고에서는 본 작품 속 인류세적 재난을 극복해가는 작중인물들의 기본 동력을 사회학자 김홍중이 제시한 ‘파국주의’의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인류세는 ‘파국’의 시대가 아니라 ‘파국주의’의 시대로, 최종 파국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예견과 고뇌와 그것을 막기 위한 실천과 제도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가 되는 시대이다. 이때 파국주의는 파국을 넘어서려는 의지와 역량을 조직하는 정동, 즉 희망을 요청한다. 김홍중, 『녹색 계급이 온다-라투르 신작에 대한 몇 가지 상념들』, 브뤼노 라투르, 니콜라이 슐츠, 이규현 역, 『녹색 계급의 출현』, 이음, 2022, 166-171면 참조.

7) 김홍중, 앞의 글, 31-32면.

8) 위의 글, 36면.

9) 기후 및 생태 위기를 통해 ‘인류의 종말’을 중심으로 다루는 최근의 인류세 서사에 대해 파국 서사, 아포칼립스 서사,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 등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인류세적 상황의 어떠한 국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용어들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텍스트를 SF재난서사적 국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SF재난서사란 일반 재난서사와는 달리 인류세의 재난 상황을 SF적 상상력으로 전개한 것으로, 특히 과학기술의 개입이 지구 생태계의 조건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국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서사로 정의할 수 있다.

의 문제를 함께 올려놓음으로써 이 두 문제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을 보여준다. 즉, 인류세의 문제의식을 근미래에 예측 가능한 SF적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서사화함으로써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과학기술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적 패러다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 인류세 서사로서 이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현 시대와 미래를 고민하는 인류세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 새로운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이 작품은 발표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왔다. 본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요 경향들은 크게 배타적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생태계 공존을 모색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¹⁰⁾와 사이보그를 중심으로 한 인간-비인간 구도의 연결망 측면에서 천착한 논의¹¹⁾, 행위자로서의 식물을 중심으로 살핀 논의¹²⁾,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과 과학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 논의¹³⁾로 대별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인류세의 위기 진단, 생태주의로의 방안, 사이보그와

-
- 10) 손혜숙, 「작은 가능성에 대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리터러시연구』 13권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이희영, 「공존을 기억하는 길-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리터러시연구』 13권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이소연, 「재난서사의 새로운 동향과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출현-김초엽, 정세랑, 두나의 소설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15권2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22.
김윤경, 「한국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재야생화(rewilding)와 생태주의」, 『우리문학연구』 79집, 우리문학회, 2023.
- 11) 윤영옥, 「한국여성 SF에 나타난 신체기술과 지구공동체-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스트로피아와 사이보그·되기: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15권1호,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023.
- 12) 송은주, 「『지구 끝의 온실』-행위자로서의 식물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인류세의 지구이야기」, 『인문과학』 92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24.
- 13) 오윤호, 「기술적 기후 재앙과 디스트 생태학자의 환영-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집,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24.

식물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들의 활약과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공존 관계의 중요성 등을 통해 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을 신유물론, 행위자-연결망이론, 인간-비인간 주제, 포스트휴먼, 진화, 공산 등과 같은 21세기 사상 지형의 스펙트럼¹⁴⁾ 안에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성과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끌어가는 기본 동력과 그것의 실천,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 문제가 지닌 의미의 천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즉,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경향들은 본 작품에 함축된 의미들을 생산적으로 밝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세적 문제의식을 담아낸 SF재난서사로서의 전언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이 서사의 골격을 이루는 중심 요소들, 즉 사이보그 식물학자 ‘레이첼’과 인간 기계정비사 ‘지수’, 인공식물 ‘모스바나’, 더스트 재난시대의 ‘프림 빌리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더스트 사태 이후의 시점을 모든 갈등이 해결된 낙관적 결말¹⁵⁾로 판단하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작품의 이해를 다소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의미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작품이 전달하는 과학기술 문명이 야기한 인류세적 문제 상황에 대한 경고와 변화를 촉구하는 주요 메시지를 간과할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오윤호의 연구에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기후 재앙에 주목하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4) 위의 글, 4면.

15)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시각, 즉 인류세의 재난이 모두 해결된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에 주안점을 둔다면 본 작품이 SF재난서사로서 내포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경고와 보다 더 큰 변화를 독려하는 전언이 상대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인류세적 재난은 해결되었으나 더스트 사태를 거쳐 오면서 성찰 없이 일관되게 노출되는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갈등의 원인은 변함없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경고를 읽어내는 작업은 이 작품의 이해에서 필수적이다.

“아포칼립스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를 유의미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공존 관계를 통한 탈인간중심주의의 생태계 구축이 소외된 타자들의 새로운 주체성의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 시대 전 구성원들의 윤리적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에 관한 논증은 본격적인 서사 분석을 통해 좀 더 명료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 끝의 온실』에 대한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파국을 이겨낼 동력으로서의 파국주의와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지구공동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SF재난서사로서의 본 작품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지수’와 ‘레이첼’이라는 주요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하며 파국의 상황에서 실상 희망을 실천으로 이끌어간 프림 빌리지 사람들의 존재성과 생태적 공존을 위한 다양한 존재들 간의 관계적 윤리의 모색, 그리고 인간중심적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본 서사가 제시하는 궁극적 전언을 고구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파국의 정동과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

『지구 끝의 온실』은 현재 진행 중인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을 약 30여 년 후의 근미래에 발생할 갈등 유발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기대된 과학기술적 접근의 오류 사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더스트폴이라는 파국적 재난 상황은 순식간에 지구의 모든 생명을 파멸로 몰아간다. 그것은 산업화 과정 이후 인간 중심의 발전과 진보라는 근대적 기획 안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가속의 성장을 주도했던 인류 역사의 예견된 결과였다. 그런데 이 파국의 상황이 더욱 문제적인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속도와 파급력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우 불평등하게 치닫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파국의 등가성과 편재성(偏在性)¹⁶⁾ 사이에는 근대적 세계관의 폭력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근대 이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 대상화되고 이용되어 왔던 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이분법적 잣대는 비단 자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에게조차 가차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휘두르는 폭력성은 압도적이다. 합리적 효용성이라는 명분의 이기적 잣대는 자연과 사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인간 범주에서 밀려난 소외자와 약자들에게까지 잔혹하게 적용된다.

생명체에 치명적인 더스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돔 시티에서 밀려난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아이들로서, 그들은 죽음의 땅에서 또다시 돔 시티로부터 착취와 학살의 대상으로 타자화·도구화된다. 이처럼 더스트폴 재난은 그 자체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통해 근대적 세계관으로 구축된 세계의 체계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생물들의 생명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세적 파국 상황은 역설적으로 소외된 타자들에게 ‘새로운 주체성의 생성 가능성¹⁷⁾을 열어 보인다. 이 점은 본 작품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온실 속 사이보그 식물학자가 개발한 식물들을 재배하며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프림 빌리지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학살로부터 도망쳐온 소외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일궈가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됨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위협적인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생존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그들이 돔 바깥의 도피처를 성실하게 일궈나가며 지켜가고자 했던

16) 황호덕, 「한국 재난 서사의 계보학·비인지적 낮익음에서 인지적 낮설게 하기까지」, 『현대소설연구』 8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455면.

17) 김홍중, 앞의 글, 6면.

일련의 규칙이나 일상적 활동들, 즉 작물을 재배하고 숲을 정찰하며 학교와 도서관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의 풍경을 화폭에 담거나 비 내리는 풍경을 구경하는 일상의 살아있는 활동들은 이러한 그들의 새로운 주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이때 프림 빌리지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행위들은 파국의 생산적 측면¹⁸⁾에서 볼 때, 인류세적 파국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하게 얽힌 정동들, 즉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분노, 절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희망’의 한 실천으로 이해된다. 소외된 타자의 표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로 일어난 그들의 행위들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파국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판과 더 친화성을 지니고 있으며,¹⁹⁾ 본 서사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파국주의의 실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박해, 생사를 건 위기의 순간과 같은 부정적 체험들은 파국의 정동 속을 가로지르며 더욱 강화된 희망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는 행위의 힘으로 실현되고 있다.²⁰⁾

한편 ‘대니’의 그림을 통해 드러내는 프림 빌리지의 어린 구성원 ‘하루’의 바람에서 우리는 약육강식의 잔혹한 시대에도 평범한 일상을 지켜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삶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증언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18) 위의 글, 36면.

19) 위의 글, 36면.

20) 김홍중은 견담, 기다림, 고통, 인내, 심지어 차별이나 박해와 같은 부정적 체험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 행위의 씨앗으로 성장해 가기도 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처럼 행위로 귀결되는 과정으로 작용하는 감수와 체험의 힘을 ‘행위형성적 감수력’이라 명명한다. 그것은 무기력과 무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깊숙이 가로질러져 있고, 부정적 체험들을 겪어 가면서 행위의 힘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라나고 익어가며 전수된다. 이 개념은 단선적 역량 강화나 우연한 계기들의 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침묵하던 존재들(가령, 노동자, 식민지인, 어린이, 노예, 여성, 피해자, 동물, 사물, 물질 혹은 사자(死者)들)의 행위자로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김홍중, 위의 글, 28-29면 참조.

더스트가 사라지면, 대니의 특별 전시회를 열 거야. 저건 역사적으로도 아주 가치 있는 그림들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불행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다는 걸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 우리에게도 일상이, 평범한 삶이 있었다는 거 말이야.²¹⁾

‘하루’의 이 발언은 또한 더스트 시대의 유토피아로 일컬어진 ‘프림 빌리지’가 지수와 사이보그 식물학자 레이첼, 그리고 그의 인공식물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더스트에도 살아남는 식물들을 재배 하며 파괴된 일상을 재건하려는 그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간절함으로부터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다.

엄격한 질서와 평화로운 일상의 균형을 맞추며 마을을 확장하고 관리, 유지하는 데 열의를 띤 공동체 주민들에게서 엿보이는 활력과 역동성은 지수와 레이첼 중심의 서사에 그들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들의 삶에 대한 활력이 결국 멸망 직전의 세계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지수로 하여금 재건의 결심을 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성은 결코 정물적이거나 부차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본 서사에서 그들이 이뤄낸 성과들의 의미와 그들의 존재성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 작품에 대한 기왕의 평가들은 대체로 주요 인물 레이첼과 지수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일례로 ‘페미니스트 SF 관점에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공헌을 기록한 작품²²⁾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들, 프림 빌리지를 애써 일구고 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의지적 행위들을 수행했던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검토는 거의 간과해 왔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21)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177면.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에 대해서는 작품명과 면수만 밝히도록 한다.

22) 이양숙, 앞의 글, 183면.

작품 전체를 이끌고 있는 레이첼과 지수의 개별 서사에 비해 이 공동체 인물들의 경우, 집단적으로 형상화되어 개개인으로서의 내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곧바로 그들 존재의 의미를 희석하거나 그들의 용감한 실천적 행위와 성취 내용을 배경처럼 정물화 시킬 수는 없다.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작가의 궁극적인 전언은 지수와 레이첼의 활약상을 통한 여성 영웅 서사로 완성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 인물들의 서사와 함께 더스트 시대의 소외된 타자들이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보여준 파국 극복의 의지와 희망의 실천 서사가 함께 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할 때 한층 더 명료하게 획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국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 여성들의 간절한 희망은 다양한 방향의 가능성 모색으로 전개된다. 그 가운데 레이첼의 식물을 마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대니와 지수의 주장은 일견 유사점을 보이지만 안팎의 경계 짓기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대니가 그것을 수용하며 돔 안에서 인류의 생존 방법을 찾고자 했다면 지수는 구분하고 배제하는 근대적 세계관의 한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돔 바깥을 바꿔 돔 안팎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함을 주장한다. 세상과의 단절은 그것이 어떠한 지향으로 성립된 단체인건 간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간파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단절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 함께 바깥에서 살아갈 아주 희박한 ‘작은 가능성’²³⁾을 제안하는 지수의 주장은 파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모든 생명체들의 평등한 생존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예정된 종말에 맞서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 공동체로서의 공생 공존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23) ‘지수’의 인물 설정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을 파악함과 동시에 어떤 작은 가능성을 찾아내는 인물들’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열어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유선애, 앞의 글, 86면 참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이 또다시 붕괴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 숲을 나가 레이첼의 식물들을 심으며 또 다른 프림 빌리지를 만들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서로 약속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숲 바깥 세계 도처에서 모스바나를 심으며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나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스바나가 무엇인지가 제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저는 그냥 그곳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프림 빌리지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도, 그런 곳은 오직 프림 빌리지뿐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식물들을 심었어요. 오직 그것만이 저를 살아가게 했으니깐요.”²⁴⁾

결국 더스트폴 사태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것은 모스바나나 과학의 힘이 이전에 프림 빌리지에서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의 의지에 있었음을 나오미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곳 전부가 이 숲이고 온실”²⁵⁾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세계를 구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파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프림 공동체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 서로에 대한 약속의 실천 행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자칫 비인간 존재와의 공생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배치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오독될 수 있다. 그러나 프림 빌리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배타적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주체들이며 이들의 비인간 존재들과의 동등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구축이 가능해진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드러내는 의지와 희망, 약속의 실천 행위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파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기본 동력의 차원에서 파국주의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24) 『지구 끝의 온실』, 353-354면.

25) 위의 책, 227면.

이로써 ‘프림 빌리지’라는 유토피아적 공간은 완성형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꿔가려는 개인들이 지닌 가능성²⁶⁾의 실천적 과정에 놓여 있음을 그들의 힘겨운 노력의 흔적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파국 속에서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고 희망을 실천한 프림 빌리지 구성원들의 존재적 의미는 더욱 의미 있게 드러난다.

3. 생태적 공존과 관계적 윤리의 형성

더스트폴 재난은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파국 앞에서는 동등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근대적 세계관에 의해 배제되고 가려졌던 엄연한 사실로서, 파국의 극복을 위해 전환되어야 할 인식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류세는 라투르가 언급한 것처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²⁷⁾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계 위기로 파급되는 총체적 파국의 상황은 세계와 자연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인류의 존속이 불가능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가 요구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²⁸⁾ 그것은 무엇보다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성립 가능하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세의 파국적 상황에서의 생존 모색은 오직 생명체들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

26) 유선애, 앞의 글, 83면 참조.

27) 김환석,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과 한국의 사례: 근대화 vs 생태화」, 『과학기술학 연구』 22권1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22, 41-42면 참조.

28) 위의 글, 41면.

작가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피라미드 형의 생태계 구조에 내재한 인간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며 인류세적 파국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의 ‘공생, 공존’의 방향성을 비인간, 그 중에서도 ‘식물’에 두어야 할 것임을 식물학자 레이첼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한다.

우리는 피라미드형 생물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미생물, 곤충들은 피라미드를 떠받치는 바닥일 뿐이고, 비인간 동물들이 그 위에 있고, 인간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셈이지요.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식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식물들은 동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의 변형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언제나 지구라는 생태에서 잠시 초대된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위태로운 지위였지요.²⁹⁾

인간을 최고 포식자로 올려놓은 피라미드형 생물관이 아니라 피라미드를 떠받치고 있는 맨 아래 위치한 식물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은 곧 인류세적 재난을 초래한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자, 본 서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갈 기본 방향의 제시라 할 수 있다. 모스바나를 지구 파멸적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지닌 인공적 기능보다는 식물 자체의 고유한 본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은 인류세를 진단하는 작가의 실천적 고민과 연결되고 있다.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식물은 ‘아주 잘 짜인 기계만큼이나 정밀하고 그러면서도 정밀함을 넘어서는 유연함³⁰⁾을 지니고 있다. 모스바나의 유연함은 그것이 더스트 종식 이후 우점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뒤에도 계속해서 개체적 생존 가능성을 유지해가는 주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을 안은 모

29) 『지구 끝의 온실』, 365면.

30) 위의 책, 79-80면.

스바나의 운명은 더스트 제거의 용도로 생명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태계의 관계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유연성을 통해 또 다른 형태로의 공존 방식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모스바나의 모순은 그 자신의 경쟁력을 만드는 더스트라는 환경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식물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더스트라는 극한 환경이 완화되면서 다시 새로운 식물 생태계가 생겨났고 모스바나는 우점종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순이 모스바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모스바나는 인간에게 적응해서 그 자신의 독성을 점점 낮추어왔고, 염증을 일으키는 가시의 크기를 작게 만들었고, 눈에 띄는 발광성 돌연변이를 상실했고, 더스트 이전부터 존재했던 잡초들처럼 스스로를 풍경 속으로 희미하게 감추었습니다.³¹⁾

인공식물 모스바나가 자신이 살아남는 길을 식물로서의 독자적 속성에서 탐색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을 개량해낸 레이첼조차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다. 스스로 유전적 다양성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해 나가는 과감한 모스바나의 행보는 생태적 공존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유연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우점종으로서 결코 생각지 못한 모스바나의 생존 방식은 생태계의 일원으로 다른 생명체와 관계를 맺으며 공존을 도모해야 하는 인류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으로 전달되고 있다.

한편 식물들이 서로 공격적으로 생존 경쟁을 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은 상호의존적인 생태계의 관계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가치로 인정된다. 생태적 공존을 위해 관

31) 위의 책, 366면.

계의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식물의 생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은 근대적 ‘주체’의 상을 유지할 수 없으며, 타자로 배제된 비인간(여성과 약자들, 자연과 사물들)은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 인류세에서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주체들과 함께 행위성을 나눠가짐”³²⁾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생태적 공존이란 타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타 존재들과의 관계적 윤리의 형성이 주요한 관건으로 제기된다. 본 서사는 인간과 비인간, 즉 인간과 사이보그, 식물 등 과학기술 시대의 모든 지구족들 간의 관계적 윤리의 탐색을 주된 갈등의 축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로의 생존을 위해 맺어진 인간 기계정비사 지수와 사이보그 식물학자 레이첼의 관계, 프림 빌리지 사람들과 모스바나의 관계를 통해 탐색되고 있다. 이들의 관계 양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비인간 세계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관계주의적 윤리를 지향한 라투르의 생태화’³³⁾ 개념과 연결된다.

먼저 지수와 레이첼의 서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의 어긋난 관계는 동등한 생명체로서의 인식과 독자적 개체로서의 존중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지수가 사이보그 존재인 레이첼에게 가진 호감 자체는 선의에 해당하나 그러한 감정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는 상대를 독자적 존재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인간중심적 이기

32) 김환석, 앞의 글, 43면.

33) 라투르는 ‘근대화’ 개념의 대척점으로 ‘생태화’를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변형에 대한 경험적이고 규범적인 전망을 가리킨다. 근대화가 집합체를 자연과 문화로 분리하는 데 반해, 생태화는 현재의 생태 위기로 증명되는 인간, 동물, 생태계, 기술 간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호 얽힘을 인정한다. 따라서 생태화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윤리를 지향한다.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황장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사월의 책, 2017, 327면.

심의 잔재일 수밖에 없다. 더스트폴을 초래한 솔라리타 연구소 측으로부터 자신이 도구화된 타자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던 사이보그 레이첼이 인간 지수와의 관계에서 중요시한 것은 동등한 존재로서의 상호 존중감이었다. 그만큼 지수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 설정에 의한 상처와 균열은 평생을 사로잡는 안타까운 기억으로 두 존재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 결국 지수가 남긴 다목적 칩을 통해 사과와 진심이 레이첼에게 전해지고, 레이첼 역시 오랜 세월 동안에도 지우지 못한 지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두 존재의 어긋난 관계에 맺힌 응어리는 회한을 남기며 해소된다. 이들의 관계적 오류와 일생을 통해 자기 잘못을 책임지려 한 지수의 행동은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인간중심적 인식을 내려놓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공식물 모스바나와 프림 빌리지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용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공진화를 이루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생태적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인간이 식물에 대해 인지 편향적으로 가졌던 선입견으로부터 탈피하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획득한 관계의 재정립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적 공존과 그것에 전제되는 관계적 윤리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 작품은 복수종의 함께 되기를 실천한 신인류의 서사³⁴⁾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34)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99면.

4. 과학기술 향유의 과제와 기억 구축의 의미

이 작품의 서사는 크게 세 개의 시간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돔 시티와 돔 시티 바깥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 과정을 담은 더스트폴 재난의 시기와 더스트 종식 후 진실 왜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건 시기, 그리고 과거 인류세적 재난의 극복 과정에서의 진실을 밝히고 과학기술에의 맹신과 윤리의 부재 상황을 경고하는 현재의 시간층이 그것이다.

본 장에서는 특히 모든 시간대의 서사에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향유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에 주목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억 구축 작업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인류세적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태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단하는 과학기술 시대 윤리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작업은 SF재난서사로서의 본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작품은 현재로부터 약 30여 년 정도 후의 근미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 시기에는 호버카, 사이보그, 인간형 로봇, 기억칩 등 첨단 과학기술의 이기들이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일면 인류 역사의 영원한 발전과 진보의 신화를 보장하는 듯했으나 이와 동시에 그 이상의 파괴력으로 인류 파멸뿐만 아니라 지구족의 공멸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어 치명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스트폴 재난은 근대주의적 사고 체계가 과학기술적 산물의 무한증식을 낳아 결국 오늘날의 생태 위기가 초래되었다³⁵⁾고 주장하는 라투르의 관점을 그대로 확인해준다.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도 공고히 자리 잡은 근대주의적 사고 체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스트폴 사태를 거치오면서도 일관되게 드러내는 과학

35) 김환석, 앞의 글, 38면.

에 대한 맹신과 편견에서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들에게 ‘과학’은 “더 스트라는 재난 속에서 인류를 구한 위대한 기적”이자 “재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도구”로써 인식된다.

그러나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해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과학기술적 솔루션만으로 간단히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과학만능주의는 과학기술을 다루고 향유하는 인간의 윤리의식의 결여에 의해 문제 해결은커녕 급기야 인간들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적, 비생물적 존재들을 공멸로 몰아가기에 이른다.

솔라리타 연구소가 기후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수행한 실험 과정에서 ‘제어할 수 없는 스마트파티클 누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급격한 증식을 막기 위해 마련된 폐쇄 프로토콜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실험을 수행했던 직원들은 실험 오류가 발생하자 주어진 긴급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도망치기 급급했고 그 결과 더스트폴 사태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장면은 연구소와 그것의 최전선에 투입된 연구원들이 과학기술적 연구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윤리도 갖추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이 사건의 보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은폐하는 솔라리타 측의 이기적 대처 또한 근대 자본주의와 결탁한 과학 및 과학기술의 비윤리성을 강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지구를 구할 그린 테크놀로지’ 선도를 내건 연구소가 이 실험에 관한 부정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 이유는 바로 근대적 세계의 덕목으로 제시되는 최대의 이익, 영리 추구에 있다. 솔라리타 연구소의 추구 방향인 ‘테크놀로지’가 ‘자본 위에 서 있는 과학의 다른 이름³⁶⁾’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과 결탁한 과학은 자체의 순수한 객관성을 상실하고 철저히 자본을 위해 도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36) 손희정, 앞의 책, 16면.

오로지 자본의 추구가만이 문제시될 뿐, 과학기술 윤리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배치된 사이보그와 인간형 로봇들은 인간의 자본 추구를 위한 도구로써만 인식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적 윤리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레이첼과 그의 인공식물들은 연구소 측의 비윤리적 연구 행태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들로부터 제거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의 연구 윤리나 그것에 대한 책임 의식은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과학기술의 이기를 향유하는 과학기술 시대 구성원 전체의 기본자세로 요구된다. 작가는 인류세적 재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과학기술에의 맹신과 그것에 대한 비윤리적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근대적 사고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한편 디스어셈블러 살포로 더스트 사태가 종식된 이후 과학만능주의는 더욱 팽배해지는 양상으로 전환된다. 참혹했던 인류세적 재난의 교훈은 과학기술의 승리에 가려져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복원된 생태계는 한층 더 공고해진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의해 심각한 편향성과 불균형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세적 재난이 종결되었다는 기술적 낙관주의에의 심취는 “잔혹한 낙관주의”가 되어 파국에의 감각을 차폐시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³⁷⁾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인류세적 재난을 교훈 삼아 교정된 세계가 아닌 인간의 목적을 위한 용도 외에는 지구의 어떠한 존재도 중요치 않은 재건 이후의 더 위태로워진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인류세적 재난의 근본 원인 진단과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더 강력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자행된 근대적 인식의 폭력성은 더스트의 완전

37) 김홍중, 앞의 글, 35-36면 참조.

종식 이후 재건된 세계에서 왜곡된 ‘기억’ 작업을 통해 미화되고 있어 그 심각성의 수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기억한다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³⁸⁾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매주 열리는 ‘기억 수업’은 돛 안의 생존자들이 디스트 시대를 겪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공헌자’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기억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그것은 당시의 진실을 은폐하는 한편 폭력의 역사를 재생산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단절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타자의 생명을 짓밟고 부정함으로써 지켜온 그들의 약탈적 생존 방식이 진술한 회고를 빙자한 감정의 정치적 언술로 진술됨으로써 미화되고 정당화되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기억은 사실에 근거한 과거의 재구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신들을 포함한 지배권력의 이념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가공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재건 시대를 주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억의 장치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예는 그들의 집합적 기억³⁹⁾으로 나오미 자매의 개인적 기억을 묵살하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그들은 량가노의 마녀들, 민간 약초학자, 재건 시대의 영웅, 치료사 등의 허구의 이름들로 나오미 자매들을 추앙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정작 이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프림 빌리지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에 대한 진실은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된 집합적 기억을 통해 나오미 자매의 진술을 묵살하고 그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그들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망각시키고 박제시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8) 랜달 C. 지머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275면.

39) 사회적 기억(집합적 기억)은 권력을 권 집단인 지배적인 신념을 확인해주는 과거의 요소들만을 선별한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사회에서 주변적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지배계급들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과거를 왜곡하는 위협을 수반한다. 위의 책, 293-296면 참조.

이에 맞서 세계 도처에 흩어진 더스트 시대의 진실 조각들을 끼워 맞추고 합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아영의 기록 작업은 왜곡된 기억에 맞설 강력한 진실의 객관적 증거인 동시에 미약한 가능성을 밀고 나가 생명으로 일궈낸 프림 빌리지 사람들의 잊혀진 노력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것은 기록 미화에 반대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의와 개인의 기억을 넘어 프림 빌리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책무를 다한 나오미의 책임 의식과 함께 미래에의 기대를 가능케 한다. 과거와 미래는 서로의 존재 없이 성립할 수 없으며 왜곡된 과거는 ‘미래의 부재’를 낳는다.⁴⁰⁾ 이 점에서 왜곡된 과거를 바로잡는 기억 구축 작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⁴¹⁾에 해당한다.

따라서 더스트 사태가 발생했던 과거를 회고하는 현재는 인류세적 재난이 모두 해결되었다거나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결말’⁴²⁾을 맞은 상황이 아니다. 더스트 사태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성찰 없는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오히려 더 공고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제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파국적 상황의 본질을 직시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기술에의 인식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작가는 더스트 사태를 거쳐 오면서도 변함없는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행태를 통해 역설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결국 본 SF재난서사의 주요 관점은 더스트 사태에 대한 회고와 그것을 해결해낸 과학기술의 자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스트 사태 이후 더욱 공고해진 인간중심적 세계관과 그로 인한 그릇된 과학기술에의 인식과 윤리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경고하는 한편 기억 구축을 통해 온전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40) 위의 책, 332면 참조.

41) 위의 책, 317면.

42) 송은주, 앞의 글, 82면.

5. 결론

이 글에서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2021)이 SF재난서사로서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문제에서 출발한 인류세 서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예견되는 파국의 상황과 전망을 진단·모색하는 과정에서 여타 인류세 서사의 방식과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본 서사에 깔려 있는 파국을 이겨낼 동력으로서의 파국주의와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지구공동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SF재난서사로서의 본 작품의 의미에 주목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인류세적 파국 상황은 소외된 타자들에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주체성'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 프림 빌리지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행위들은 인류세적 파국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하게 얽힌 정동들, 즉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분노, 절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희망'의 한 실천으로 이해된다. 소외된 타자의 표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로 일어난 그들의 행위들은 본 서사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파국주의의 실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활력이 결국 멸망 직전의 세계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지수로 하여금 재건의 결심을 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성은 결코 정물적이거나 부차적이지 않으며, '프림 빌리지'라는 유토피아적 공간이 완성형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꿔가려는 미약한 개인들이 지닌 가능성의 실천적 과정에 놓여 있음을 그들의 힘겨운 노력의 흔적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파국 속에서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고 희망을 실천한 프림 빌리지 여성들의 존재적 의미는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작가의 궁극적인 전언은 주요 인물들의 서사와 함께 더스트 시대의 소외된 타자들이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보여준 파국 극복의 의지와 희망의 실천 서사가 함께 구성되

고 있음에 주목할 때 한층 더 명료하게 획득될 수 있다.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계 위기로 과급되는 총체적 파국의 상황은 세계와 자연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인류의 존속이 불가능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의 관계 맺기가 요구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른바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인류세의 파국적 상황에서의 생존 모색은 오직 생명체들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

‘모스바나를 지구 파멸적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지닌 인공적 기능보다는 식물 자체의 고유한 본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은 인류세를 진단하는 작가의 실천적 고민과 연결되고 있다. 또한 모스바나의 생존 방식은 생태적 공존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유연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주요 덕목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향유에 있어서의 윤리의 방향성 성찰과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기억 구축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본 SF재난서사의 주요 관점은 더스트 사태에 대한 회고와 그것을 해결해낸 과학기술의 자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스트 사태 이후 더욱 공고하게 지속되어 가는 인간중심적 세계관과 그로 인한 그릇된 과학기술에의 인식과 윤리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경고하는 한편 기억 구축을 통해 온전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2. 단행본

가이아 빈스, 김명주 역, 『인류세, 엑소더스』, 곰출판, 2023.

김홍중, 『은둔기계』, 문학동네, 2020.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랜달 C. 지머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손희정,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 메멘토, 2024.

세릴 빈트, 전행선 역,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아르테, 2019.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황장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사월의 책, 2017.

유선애,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한겨레출판, 2021.

필리프 테스콜라, 차은정 역, 『타자들의 생태학』, 포도밭출판사, 2022.

3. 논문 및 평론

김윤정, 「한국 여성 SF에 나타난 재야생화(rewilding)와 생태주의」, 『우리문학연구』 79집, 우리문학회, 2023, 203-234면.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 파국과 페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 연구』 19권 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1-49면.

김홍중, 「녹색 계급이 온다-라투르 신작에 대한 몇 가지 상념들」, 브뤼노 라투르, 니콜라이 슐츠, 이규현 역, 『녹색 계급의 출현』, 이음, 2022, 159-179면.

김환석,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과 한국의 사례: 근대화 vs 생태화」, 『과학기술학 연구』 22권1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22, 34-62면.

문형준, 「인류세 시대의 문학-생태 위기와 파국서사의 가능성」, 『영어영문학21』 31권4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8, 1-19면.

박인성, 「인류세 서사 속 기후 소설이라는 문학적 교차점」, 『A SQUARE』 7호(ARKO WEBZIN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11.

복도훈, 「인류세의 (한국)문학 서설」, 『한국문예창작』 19권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0, 13-33면.

- 손혜숙, 「작은 가능성」에 대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리터러시연구』 13권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539-555면.
- 송은주, 「『지구 끝의 온실』-행위자로서의 식물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인류세의 지구 이야기」, 『인문과학』 92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24, 53-87면.
- 오윤호, 「기술적 기후 재앙과 디스트 생태학자의 환영-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집,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24, 1-26면.
- 원영선,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인류세 연구」, 『안과 밖』 46집, 영미문학연구회, 2019, 245-407면.
- 윤영옥, 「한국여성 SF에 나타난 신체기술과 지구공동체-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219-243면.
- 이소연, 「재난서사의 새로운 동향과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출현-김초엽, 정세랑, 두나의 소설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15권2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22, 55-77면.
-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스토피아와 사이보그·'되기':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15권1호,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023, 161-193면.
- 이지용, 「한국 SF에서 나타난 환경 위기 인식 연구」, 『반교어문연구』 56집, 반교어문학회, 2020, 53-74면.
- 이희영, 「공존을 기억하는 길-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리터러시연구』 13권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603-618면.
- 황호덕, 「한국 재난 서사의 계보학-비인지적 낮익음에서 인지적 낮설게 하기까지」, 『현대소설연구』 8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431-496면.

<Abstract>

The Catastrophism in SF disaster narratives
and the Ethical paradigm of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Kim Cho-yeop's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Yoon, Ae-Ky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atastrophism underlying Kim Cho-yeop's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and its significance as a SF disaster narrative tha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global community coexistence in terms of the ethical paradigm of the technological age.

The actions of the Prim Village women, who paradoxically transitioned to a 'new subjectivity' in a situation of anthropocene catastrophe, are a practical aspect of catastrophism, and the situation of total catastrophe calls for a shift to an ethical paradigm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 words: SF disaster narrative, Catastrophism, anthropocentrism, a new subjectivity, relational ethics, Ethical paradigm, Kim Cho-yeop,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투 고 일: 2024년 8월 26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